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새 홈페이지 드디어 3월1일 오픈

승리제단 진리체계 구현 위해 전면 개편



홈페이지 첫 화면을 캡처했다

승리제단 홈페이지가 드디어 3월 1일 새롭게 선을 보인다. 지난해 7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였으니 약 8개월이 걸린 셈이다.

홈피를 클릭하면 첫 화면 상단에 “죽음이 없는 세상 이제그대로 이루어진다. 승리제단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하는 곳입니다”라는 플래시가 떠오른다. 승리제단의 비전과 설립목적 한 마디로 줄인 것이다.

그때 한 마리 비둘기가 날아와서 승리제단 건물에 딱 멈춘다. 그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다. 도착한 승리제단 건물은 무지갯빛으로 둘러싸여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 건물 밑

으로 반발한 무궁화꽃이 반발해 둘러싸여 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물고 있는 감람나무는 구세주를 뜻하며,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이므로 구세주가 대한민국의 승리제단으로 오셔서 찬란한 감로 이슬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승리제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승리제단을 창시한 조희성 선생에 대한 것이리라. 그래서 상단 메뉴의 첫 번째를 ‘창시자’로 구성하였다. 그것을 클릭하면 승리제단을 창시한 조희성 구세주에 대한 내용이 간결하게 나온다. 조희성 선생께서 설한 영생의 원리는 무엇이

며, 어떤 발자취를 남겼고, 성경과 불경 등 경전은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그분이 꼭 이루어졌다고 약속한 5대공약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떤 수난과 역경을 겪은 후, 보광(普光)하셨고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관심 있는 부분은 승리제단의 교리와 가르침일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승리제단 소개라는 메뉴를 만들었다. 이 메뉴에서는 승리제단의 교리와 비전, 역사와 연혁 등 승리제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외의 상단 메뉴에는 구세주 조희성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모아 놓은 ‘생명

말씀’, 구세주의 증표인 ‘이슬감로’, 동영상, 승리신문, 커뮤니티가 있다.

이번 승리제단 홈페이지 개편을 주도한 김갑용 사이버담장은 플래시와 동영상으로 승리제단의 진리체계를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려하였다고 한다. 또한 승리제단이 진정한 구도단체라는 것을 강조하여 알리기 위하여 첫 화면에 ‘구도의 길’이라는 박스를 만들어 눈에 띄게 한 점이 돋보인다.

김담장은 “홈피는 승리제단을 대표하는 사이버상의 얼굴이다. 승리제단의 진리 체계와 조희성 구세주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줄이고 불사영생의 원리를 간추려 이번 홈페이지에 실었다. 새 홈페이지를 구원하러 오신 조희성 구세주를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앞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의 구원 사업에 부합하는 홈페이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새 홈페이지 런칭의 의의를 힘주어 말했다.*

김중천 기자

김갑용담장 인터뷰 기사 4면 참조하세요

인사발령
제6지역장 김주호 승사

영생이 사기라급쇼?

빛꽃은 봄에 피듯 영생의 꽃도 때가 되어야 핀다. 검찰은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영생의 꽃을 피우라고 압박지르는 꼴

2004년 6월 말경으로 기억한다. “친구야, 이제는 영생교 끝났잖아. 교주가 돌아가지 않잖아” 절친한 대학 동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한다. 교주가 죽었는데도 아직도 영생을 믿고 있느냐고 핀잔 섞인 말투로 힐난한다. 어떤 이는 불쌍한 눈빛으로 말을 대신하기도 한다. 우리가 미쳤을까?

대법원은 1995년 4월 28일 영생을 주장하여 헌금을 받은 것은 사기라는 취지로 영생교 승리제단의 조희성 총재에 대하여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조재석 변호

사는 이렇게 변론했다. 그 일부를 인용한다.

지금은 첨단과학시대이며, 정보혁명시대로서 옛날과 모든 면에서 다르다. 새로 태동되고 있는 영생학을 사법적으로 평가하여 죄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영생학은 새로운 학문의 장르로 취급되어야 한다. 죽음을 전제로 한 모든 종교와 학문과 다르다고 해서 사이버비와 이단이라고 평가절하되어서는 인류의 진보를 막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사법부가 이러한 일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이다.

영생은 모든 종교의 목표이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영생을 알려주는 조희성 총재에 대하여 흑세무민하는 사이비라고 규탄하고, 또 그와 같은 허황된 말을 하여 헌금을 받았으니 사기라고 하여 사기죄로 15년씩이나 벌을 주고, 죽어서 천당가고 극락간다고 하면서 받은 헌금은 합법적이라고 하여 면죄부를 준다면 과연 죽어 천당가고 극락간다고 하는 말이 실증법상 증명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

조희성 총재가 제창한 영생론이 완전한 종교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 총재를 찾아온 가난하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해 주시는 것이다. 종교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궁극적 목표를 검토하여 그것이 사이버비나 여부를 단정해야 한다.

영생교는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면 그곳에 깨달음이 있고, 도통의 길이 있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교리가 장래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조 총재에게 유죄를 판결한 것은 조 총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당장 보여 달라고 압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성급하게 빛꽃나무를 쪼개서 그 속에 빛꽃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려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빛꽃나무를 쪼개봐야 그 속에 빛꽃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속을 쪼개보지 않아도 아름다운 빛꽃이 활짝 필 것이다.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봄이 되어 빛꽃을 피울 수 없을 때 단죄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성경과 불경을 비롯한 모든 종교의 경전은 살아 영생을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꼭 주지해야 할 것이다.*

승리제단 홈페이지 들어가려면

(<http://www.victor.or.kr>)

새 홈페이지 나오면 옛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는 독자들이 있다. 옛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 중 쓸 만한 것은 다 새 홈페이지로 옮겨 놓았으므로 옛 홈페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쇄될 예정이다.

새 홈페이지 주소는 먼저 것과 달라지지 않는다. 새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주소창에 <http://www.victor.or.kr>라고 치면 된다.

②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생교’ ‘승리제단’ ‘세계연합 승리제단’이라고 입력하면 된다.

주소창에 ‘구세주.한국’, ‘메시아.한국’, ‘생미르불.한국’, ‘미르부처님.한국’, ‘messiah.so’라고 치면 된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새 홈페이지는 인터넷 초보자들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불사(不死)영생의 도(道)를 추구하는 구도자들, 진리에 목마른 심령들, 기성종교의 벽에 부딪쳐 방황하는 영혼들은 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기를 바란다. 이곳에는 그대들에게 아낌없이 부여하는 맑고 밝은 영혼의 샘물이 분명 흐르고 있다.*

정도령님과 첫 만남(입문수기)	3면
방광염에 좋은 음식	4면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해야(말씀)	5면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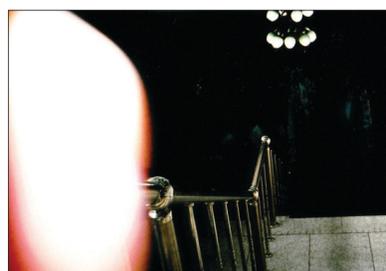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